

여성 전문가의 시각과 언어로 원자력 이해 증진 위해 노력

홍 성 운
WIN-KOREA 회장

WIN(Women In Nuclear)은 원자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여성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원자력을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똑같은 생각으로 만든 단체로서, 10년 전인 1992년에 유럽에서 처음 발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몇몇 나라 여성 전문가들만이 힘을 합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이 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공감을 얻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WIN에는 세계 51개국의 여성 원자력 전문가 약 2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WIN은 해마다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대회를 개최하여 원자력 문제에 대한 여성 특유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면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 이용에 대한 내용을 일반 대중, 특히 다른 여성과 차세대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제9차로서 세계WIN의 한국 지부로 출범한 WIN-Korea가 주관하여 5월 14~17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원자력 또는 방사선이라고 하면 막연하나마 두렵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 있어서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원자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원자력 또는 방사선에 대하여 남성보다도 한층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위험에 대한 방어 의식과 함께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하여 같은 여성으로서, 특히 원자력 전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특유의 언어와 시각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나라, 여러 경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여성의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을 직접 다루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이 일반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때 이들은 원자력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이 왜 우리 생활에 필요하

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을 더욱 보람있게 이용할 때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자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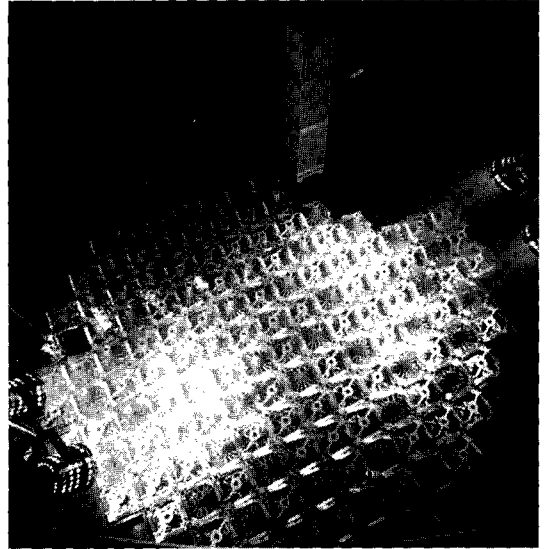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도 원자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자력연구소와 같은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직접 원자력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은 약 1백50명에 이릅니다.

그 중 상당수 여성 전문가들이 세계WIN의 취지에 찬동하여 세계WIN의 국내 조직인 WIN-Korea를 설립, 작년 11월 7일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은 바로 큐리 부인의 탄생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족한 WIN-Korea는 여성으로서 큐리 부인이 인류에게 기여한 업적을 재조명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WIN-Korea에는 80명이 넘는 여성 원자력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습니다. 물론 WIN-Korea의 취지에 찬동하는 남성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WIN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자력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여성 전문인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면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UN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깊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IAEA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여성 전문가들의 분포는 겨우 20%에



불과할 뿐입니다. 30% 이상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유능한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고용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계에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WIN-Korea는 회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며 회원들간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WIN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높이고자 하며 다른 나라 회원들이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면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제공코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원자력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성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